

문헌정보학의 교육방향에 관한 고찰

The Education Direction of the Libray and Information Science.

김 명 옥(Myung-Ok Kim) *

목 차

- | | |
|-----------------|----------------------|
| 1. 서론 | 5. 고등교육개혁과 문헌정보학의 관계 |
| 2. 대학교육과 학문의 관계 | 6. 문헌정보학 교육방향 |
| 3. 문헌정보학 학문의 위치 | 7. 결론 |
| 4. 문헌정보학 교육현황 | |

초 록

본 연구는 학부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개혁 상황 아래에서 대학교육과 학문의 관계, 문헌정보학의 위치, 문헌정보학 현황 및 고등교육개혁과 문헌정보학의 관계를 살펴보고 문헌정보학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정보학의 소속을 인문과학에 두었으며, 학부제의 장단점을 논의하였고, 앞으로의 교육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From 1996, Some universities tried to reform the educational systems in Korea. Almost all departments of university except some departments are integrated in large subjects, humanities, social sciences ect. This study 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ity education and a science, the Libray and Information science position,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reformed educational system and it tries to suggest the educational direction of the libray and information science.

* 숭의여자전문대학교 교수
접수일자 1997년 5월 9일

1. 서론

21세기의 한국사회는 개방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세계적, 국가적 요구가 사회 각 분야에서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컴퓨터개발, 초고속통신망의 발달, 정보전달매체의 다양화 등으로 정보량이 급증하고 있다. 즉, 지난 5,000년 보다 최근의 30년에 생산된 정보가 많고, 과학 정보량은 매 6년마다 배가되며, 유용한 정보량은 현재 매 5년 마다 배가되는데, 곧 매 4년 마다 배가될 전망이다(Moore, 1995, 15). 따라서 21세기에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를 찾는 능력, 선별능력, 이용능력, 정보 생성능력 등을 갖춘 인간상이 요구될 것이며 정보관련 기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대에는 한국 인구의 다섯사람 중 두사람은 지식,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황정규 1995, 135). 이러한 사회의 고등교육은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알맞는 인간상을 배출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고등교육개혁안을 통하여 21세기를 대비한 고등교육의 대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교육적 변화는 문헌정보학 교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78년 부터 1991년 까지 14개 문헌정보학 도서관학교(대학

원)가 폐쇄되었고, 그 후에 Brigham Young 대학교의 도서관학교가 폐교되었다. 특히 최초의 도서관학교였던 콜롬비아 대학, 최초의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개설한 시카고대학 도서관학교의 폐교는 문헌정보학계에 충격을 주었다(Foster, 1993, 199). 이러한 현상은 사회 및 교육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않지만, 미국을 통하여 문헌정보학을 받아들인 우리나라의 학계에 일말의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부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 교육개혁 상황 아래에서 대학교육과 학문의 관계, 문헌정보학 학문의 위치, 문헌정보학 교육현황과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진로와 교육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2. 대학교육과 학문의 관계

2.1 대학의 사명

대학이란 과거로 부터 축적되어온 모든 진리를 낱알이 습득, 계승하고, 그 토대 위에서 기성의 진리에 대하여 그 진부를 가릴 수 있도록 가차없는 비판을 가하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새 진리를 발견, 창조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창조된 새 진리를 다시 미래를 위하여 축적하는 곳이라 하겠다.(정요섭 1994, 24). 따라서 대학사회는 시간을 초월한 세계로서, 국제성

및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며, 역사와 민족과 인류의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교육법 제108조에 의하면 교육, 연구, 봉사의 3대 기능을 지니고 있다. 대학은 개인의 인격적, 전문적인 측면의 교육과 함께 진리를 탐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연구활동과 사회봉사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지도적인 인간자원을 양성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기능인력을 배출하고 실용적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산업화의 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따져 묻고, 좋은 삶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는 비판적 정신의 계발에도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윤편중 1995, 9). 대학은 인격도야를 위한 일반교양교육의 기능과 함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 전문인력양성에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이념 정립, 대학의 목표확립 및 역할을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에는 새로운 대학사회의 도래가 예고되고 있다. 1997년 현재 우리나라 대학사회도 학생소비자시대의 교육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구병림 1995, 52). 즉, ①교육서비스의 질, 양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다. ②개성있는 학풍을 정립하고 그 학풍과 특성에 알맞은 학생집단을 수용함으로써 대학교육의 특화 영역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③학생의 위상이 크게 변화하여 소비자로서의 위치가 강화되므로 건전하고 바람직한 많

은 기대와 요구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에서의 학생복지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④대학간에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그 분담에서 소외된 대학들은 존재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간의 경쟁이 극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⑤대학운영 전반에 봉사적 지원체제와 아울러 기업에서의 생산성 제고전략이 대학경영면에 적용될 전망이며, 이미 이러한 성향은 선진국 대학에 크게 보급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교육개혁은 과거의 교육에 대한 정확한 진단, 평가를 토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과 대학본질의 유지를 조화시키는 일에 유의하여야 한다. 대학교육이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고, 소극적이라면 교육기관으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교육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변화에만 치중하게 되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일본에서도 21세기를 지향하여 고등교육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市川(1995, 142)은 이러한 개혁에 대하여 '교육과정 개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과정의 중핵이 되어야 할 교육이념은 불명확한 채로 다양한 과목이 제공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선택의 폭만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대로는 문화센터와 다를 것이 없는 존재가 될 수 밖에 없다. 고등교육의 다양화, 대학의 개성화는 특이할

만한 진전을 보였지만, 환언하면 이는 대학교육개념의 해체이고, 평균적인 교육연구 수준의 저하가 될 공산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이 사회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사회제도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대학사회의 공통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다양화, 특성화를 지나치게 주장하면 전체로서 공유할 수 있는 사명.기능.역할.문화 등을 형성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다양화, 특성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대학교육의 주체성 유지, 대학문화의 형성 및 대학의 사명완수 등이 과제로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대학교육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내 약 1천개의 정규대학 중 30% 가량인 3백개의 대학이 인터넷을 통한 학위과정을 개설하였고, 일부 미래 학자들은 수십년 내에 전통적인 의미의 대학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까지 하고 있다(동아일보, 1997. 5. 1). 이러한 전망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학당국은 대학교육시장의 외부적 환경변화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고등학교 졸업생 수의 변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고등교육 인력의 성격, 피교육자인 학생의 요구와 태도,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에 유념하여 미래의 대학교육 수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영.미 등 외국에서는 시간제 등록제 도입이 활성화되어 전일제 등록 학생수와 시간제 등록 학생수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87년 현재 시간제 학생수가 전체 학생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95년 현

재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에는 시간제 등록학생수가 2,499명, 미시건주립대학에는 3,825명이나 된다. 영국은 지난 70년 부터 87년 까지 전일제 학생수는 평균 29% 증가한데 반해서, 시간제 학생수는 4배에 달하는 평균 11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김영한 1995, 11).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부터 13개대학(4년제 대학 8개교, 개방대학 및 전문대학 5개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간제 학생 등록제에 직장인이 몰리고 있다(조선일보 1997. 4. 9). 이러한 고등교육의 변화는 교육 이념.목표.기능.방향 및 교과과정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특히 실용적 성격이 강한 문헌정보학 교육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2. 2 학문의 의의

학문이란 지식의 조직체를 뜻하는 말이다. 예를 들면 실험에 의하여 주어진 단편적인 지식은 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학이 형성되는데 필요한 소재로서는 중요하나 학은 그들 개개의 지식이 필연적 연관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 조직체를 체계라고 하며 학은 체계화된 지식이다(最新哲學大事典, 1987, 1198).

따라서 학문은 연구 방법과 체계를 갖춘 지식의 조직체 혹은 그 지식을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세계성과 보편성이 그 본질적 성격을 이루고 있다.

무엇이 <학>의 범위에 속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기준의 원리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편의와 수요에 따라서 다를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경우, 적어도 기원 1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지식>의 체계적인 분류가 다양하게 시도되었는데, 이것은 대체로 ①도서의 분류 ②백과사전의 성격인 유서(類書)의 편찬 ③학교나 서원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관련해 제시되었다(소광희 외 1994, 11-12). 그 관계는 오늘날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양 학문은 2500년전 고대 그리스의 식민 도시 밀레토스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서양의 학문사에서 학문의 분류체계에 대해 본격적인 철학적 성찰을 시작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였으며, 베이컨, 데카르트, 스피너, 헤겔, 콩트 및 최근에는 피아제가 학문체계에 대한 주목할 만한 나름의 견해를 개진하기도 했다.(소광희 외 1994, 211)

이러한 학문분류 체계는 학문연구의 대상, 목적, 연구방법, 학문의 실용성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체계의 분류기준을 대상영역의 구분에서 찾아보려는 생각은 일반인에게는 거의 상식으로 굳어져 있는 듯 하다. 우리는 보통 이과학문과 문과학문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마도 서양학문을 수용하는 단계에서 은연중에 독일에서 한때 있었던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구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한다. 대상이 같더라도 연구방법론의 차이가 있다면 학문분야의 구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소광희 외, 214-218).

학문분류는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대상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으로 3대 구분하고 있다. 最新哲學大事典(1987)에 의하면, 인문과학은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 및 문화에 관한 학문영역으로써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즉 사회, 경제, 역사, 인문지리, 법률, 종교, 도덕, 교육 등에 관한 학문 및 철학 등의 총칭이고; 사회과학은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철학, 언어학 등 사회적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학을 말하며; 자연과학은 인간의 목적이나 가치에 관계없이 자연현상의 법칙을 탐구하는 개별과학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은 그 구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인문과학은 인류문화에 관한 정신과학의 총칭이며, 사회과학은 인간사회의 여러 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을 해명하려는 과학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응용과학은 실생활에 직접관련될 수 있는 지식체계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의 경우는, 1887년 미국의 듀이(Melvil Dewey)와 독일의 쾨르스(Karl Daitzko)가 대학에서 교과목을 설치함으로써 현대적인 학문으로 성립되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까지의 학문분류표에 도서관학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학문체계는 교육편제와 엄격하게 구별된다. 교육편제는 인재의 양성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육성하고자 하는 인간상의 교육을 위한 제도와 관련이 있

〈표 1〉 문헌정보학과 의 소속대학 현황

소속 대학명	학교수	%	대 학 명
문과대학 혹은 인문과학대학	14	44	건국, 경기, 경성, 광주, 동의, 명지, 성균관, 숙명여자, 연세, 전북, 전주, 중앙, 청주, 한남
인문사회과학대학	3	9	부산여자, 상명, 중부
사회과학대학	13	41	강남, 경북, 계명, 대구, 대구효성카톨릭, 덕성여자, 동덕여자, 부산, 서울여자, 이화여자, 전남, 충남,
경상대학	1	3	한성
사범대학	1	3	대전
합계	32	100	공주

다. 그러나 교육편제는 학문체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바탕 위에서 제도화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3. 문헌정보학 학문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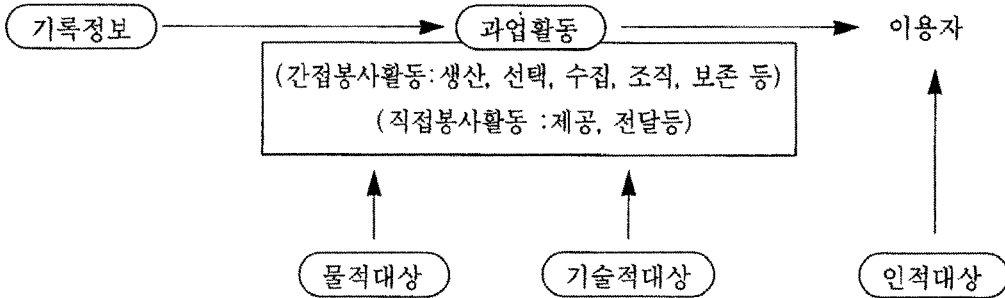
문헌정보학과 의 소속은 학문을 보는 관점에 따라 몇개의 계열에 소속되어 분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소속계열이 다른 이유는 소속대학의 정책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문헌정보학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 전체로 보았을 때 학문분류 및 교육편제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의 원류가 어디에서 출발하였는가 하는 관점 조명이 필요하다.

문헌정보학의 정의에 있어서, 문헌정보학용어사전(1996)은 도서관학이란 도서관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서지, 봉사, 운영상

의 제반 지식이나 기법 및 도서관 현상에 관련된 학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명칭이 문헌정보학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였다. ALA용어집(1983)은 도서관학은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정보를 선택, 수집, 조직, 이용되는 기록정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였고, 정보학은 모든 형태의 정보생성,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연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국도서관학회(1993)에서는 '도서관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도서관경영상 실제 수요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포괄하고 있으며 연구범위가 도서관의 발전과 수요에 따라서 날로 넓어지고 있다. 이것은 기타 과학의 발전사정과 는 일치되고 있지 않으며, 기타 과학의 발전은 내용의 심오함에 따라서 분화되어 새로운 학과가 나타나지만 도서관은 도서관의 종류와 업무의 확장에 따라서 연구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도서관학은 응용과학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리재철 교수(1990)는 '문헌정보학

〈표 2〉 문헌정보학의 연구대상



은 종래의 library science와 최근 이 분야에 응용된 정보학을 통합해서 새로운 학문체계를 세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확대된 내용과 개념을 지닌 학문에 종래 써오던 library science란 학명은 그 이름이 포함하고 있는 포용성이 좁은 library란 말 때문이며 학명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외 여러 학자들의 도서관학 혹은 문헌정보학 정의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을 ①도서관 기관의 업무 시각에서 정의한 것과 ②문헌 또는 기록정보의 전달 또는 공공이용(개방이용)이란 시각에서 내려진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같은 학문을 정의하는데, 그것을 보는 학자의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 그 학문의 대상과 본질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이다(리재철, 1990, 11).

그런데 문헌정보학의 연구대상은 인적대상, 물적대상 및 기술적대상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그 관계는 〈표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표 2〉와 같이 문헌정보학의 연구대상 중 물적대상, 기술적대상은 인적대상의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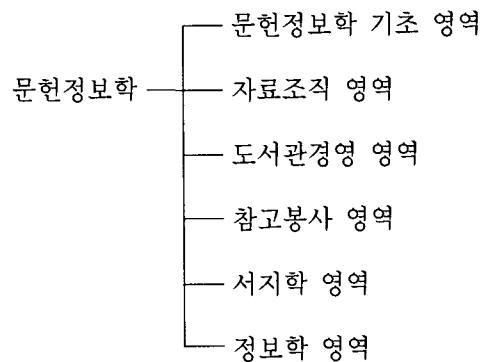
좌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이란 이용자가 기록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산·선택·수집·자료조직·보존·전달하는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에 관련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용자인 인간의 효율적인 정보의 이용이며, 정보의 유통 과정·방법·기술 등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게 됨으로 문헌정보학은 사회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는 변화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헌정보에 대한 지식이나 문헌정보 담당기관, 과업활동, 사회적 현상과의 관계, 과학적연구 등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연구내용 및 방법론적인 측면이며, 그 자체가 문헌정보학의 연구대상의 원류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헌정보학은 학문의 독특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소속 학문영역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은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발달하였으나, 학자에 따라서 인문과학, 경험과학, 자연과학, 응용과학, 기술 등에 속한다.]

주장하기도 하였다(Dick 1995). 또한 종합 과학, 독자적인 학문영역 등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은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특성이 확고하게 정착되지 못한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문헌정보학이란 학문을 무엇을 원리로 하여 분류할 것인가 하는 원칙의 문제가 동일하지 않고, 시대의 변천, 문화, 전통, 학문관의 차이, 새로운 지식영역의 등장, 문헌정보학의 다학문적 특성 및 교육편제에서의 실리추구 등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문헌정보학을 독자적인 학문분야 혹은 종합과학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학문의 대열에 서지 못하고 타 학문을 위한 보조분야나 예비분야로 생각될 우려가 있고, 학문적, 사회적 고립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리고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학문에라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문의 한 영역에 귀납되도록 이론과 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표 2>와 같이 문헌정보학은 과업활동의 궁극적인 이용대상인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인간의 본질과 그 소산인 문화를 연구대상으로 한다고 간주한다면 인문과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보 유통과정 및 도서관, 정보자료실 등 정보담당기관의 발생 등을 사회적, 문화적 현상으로 간주하여 사회과학 혹은 응용과학의 한 영역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문헌정보학의 발생원류는 이용자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은 이용자의 효과적인 기록정보 이용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 및 기술에 관한 학문이며, 그 과업활동으로써 기록정보의 생산, 수집, 자료조직, 보존, 전달까지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정보학이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의 학문체계에 대한 연구는 프럼머(M.W. Plummer 1923), 킬크너(J. Kirchner 1931), 오노(小野則秋 1936), 후지하야시(藤林忠 1951) 등이 노력하였으며(박준식 1979, 42-60), 우리나라에서는 정필모(1969; 1974), 김정소(1977), 박준식(1979), 리재철(1990), 최성진(1995) 교수 등이 문헌정보학의 체계화에 노력하였는데, 문헌정보학 학문영역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정동열 교수(1992)는 문헌정보학의 연구대상을 크게 전문봉사적 측면, 기술적 측면과 과학적 측면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같이 문헌정보학은 학문분류체계에서 나타나듯이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에 따라서 그 영역을 다르게 제시할 수

있으며, 그것이 현재 대학에서의 각기 다른 계열에 속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은 그 학문이 발생하게 된 원류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며, 소속학문의 계열을 통일하는 것이 학문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인재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타 학문분야, 예를 들면,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학문에서도 연구대상에 따라 학제적특성과 함께 인문과학적,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인 각도에서 연구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 그 예로서, 학문의 원류보다 연구방법을 중요시하여 경영학분야에서도 경영정보학과가 경영학계열, 이공계열 등에 흩어져 개설되었던 것은 학문영역의 분리라기 보다는 학과개설이라는 실리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의 연구방법에 있어서 Busha & Harter(1980)는 ①실험적 연구 ②조사연구 ③역사적 연구 ④운영연구 (operational research) ⑤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일본의 新圖書館學ハンドブック(1984)은 ①역사학적 ②사회학적 ③정보학적 ④비교법 ⑤통계적 연구방법으로 구분하였고, 정동열 교수(1992)는 문헌정보학의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학문영역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학문의 연구대상을 조사, 분석,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1957년부터 실시된 문헌정보학 교육은 외국에 비하여 학부중심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동안의 고

등교육으로 인하여 한국적 문헌정보학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대학사회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적 문헌정보학이란 한국의 문화, 체제 및 가치관 속에서 이용자의 효율적인 정보자료의 이용을 위하여 기록정보의 여러 현상을 설명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생성되는 기록정보의 현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식, 이론 및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의 학제, 체제, 이론, 기술 및 교육방법과 내용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선망하기 보다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의 문헌정보학교육을 토대로 이론과 실무의 측면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우리의 토착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이론 및 실무를 개발하고 교육방법을 강구하여 문헌정보학 이론과 기술의 수요처인 도서관, 정보실, 정보센터, 정보분석실 등의 정보자료 담당현장과 학생들에게 이바지해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문헌정보학 교육현황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은 1945년 해방 당시 19개 고등교육기관이 있었다. 그 후 1947년 서울대학교에 대학원 석사과정도 도입되었고, 박사학위의 경우, 교육법에 규정이 있었으나 명예학위 및 구제도에 의한 박사학위 수여 만이 시행됐을 뿐이다. 그 후 1957년 서울대학교에 정규박사과정 설치되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도서관교육은 국립 도서관부설국립도서관학교(1945-1950) 개설로 시작되었으며, 대학 정규과정은 1957년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도서관학당이 신설되었고, 1973년 성균관대학교에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1985년 부터 전남대학교를 필두로 도서관학과는 문헌정보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현재 대학(교) 32개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18개교, 박사과정 6개교, 특수대학원 3개교, 전문대학 7개교, 사서교육원 2개원에서 개설하고 있고, 도서관학 명칭은 3개교(공주대학교,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문헌정보학은 대학에서 고등교육의 다양성, 수월성 추구의 시기인 1980년대에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1973년에 개설되었던 대학원 박사과정은 초창기에는 부진하였으나, 1980년 부터 활기를 찾았으며 1992년 2월 현재 석사(일반대학원) 487명, 박사 57명이 배출되었다(김길자 1994 참조). 1970년에 개설되기 시작한 전문대학은 1997년 현재 7개교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문헌정보학의 단기교육 및 산업체교육 실시에 공헌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고등교육 결과는 문헌정보학의 발달, 사서직의 전문화, 전문직 수준향상, 사서직제 형성 및 정보담당기관의 합리적인 운영 등에 공헌하였다.

5. 고등교육개혁과 문헌정보학의 관계

1995년, 1996년의 제1차, 제2차 고등교육개혁안으로 인하여 대학 자체의 교육체제 변화에 따라서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균대학교 등에서 학부제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학부제 특성은 복수전공제, 최소학점인정제, 대학원연계과목제도 및 대학원중심교육 등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과거에 실험대학, 계열별모집, 졸업정원제 등을 경험하였고, 21세기를 지향하는 교육개혁으로서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혁과정에서 일어나는 단점은 계속 보완하면서 21세기를 대비한 훌륭한 인재양성 교육이 성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부제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5. 1 복수전공제

문헌정보학 교육의 경우, 복수전공제 실시는 주제전문가 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복수전공제는 문헌정보학이 주 전공이 되지 못하고 타 학문 전공분야의 학습에 필요한 제2전공이나 예비 및 보조 학문 분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문헌정보학과와의 경우에는 복수전공제로 인하여 저변확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학문연구에 까지 기대되는 전공의식은 희박하게 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기초학문의 위축과 전공분야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도서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전문사서의 양성이 어렵게 되어 사회의 지도적 인재를 배출하여야

하는 대학 본연의 책임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이은철 1996, 49). 또한 학문의 성격상 다양한 주제의 창조적 종합이 요구되지만, 학부차원에서 이러한 종합의 능력을 개발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 많은 학생들이 종합은 커녕 개별 주제의 소화에도 급급한 상태이고, 그 결과 대학 4년의 교육이 전혀 연결, 종합되지 않은 중구난방식 단편적 지식의 축적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전성현 1994, 115). 따라서 대학원까지 이어지는 주전공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제전문가 양성에 있어서도 복수전공제가 영역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계열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상태라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학점 수에서 차이가 나게 될 뿐, 과거의 부전공제를 활용하는 것 이상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생들도 소속이 불분명하여 전공학문 특유의 문화를 창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5. 2 최소 학점인정제

현재의 최소 학점인정제에 따라서 실시 중인 대학마다 전공과목 학점수가 다양한데,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와 같이 학부제 실시대학의 전공 학점 수는 70학점 정도에서 30-36 학점 정도로 급격히 감소하여 과거의 교육과정과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질적저하를 막기 위하여 학과교육 목표, 이념,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변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러한 학부제는 연구중심대학으로서 대학원교육을 전제로 하며 대학의 다양화, 특수화를 추구하도록 계획되었다. 따라서 대학당국은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학부제 운영, 복수전공제, 최소학점인정제 등을 실시하여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과정 등의 개설

<표 3> 고등교육기관의 전공분야 학점 수

교육기관	전공기초 (필수)	전공과목 (선택)	부전공	교양과목	졸업학점	비 고
연세대학교	6	30	·	36	140	복수전공제
이화여자대학교	·	30	·	·	140	복수전공제
성균관대학교	·	33	·	39	130	단일전공가
숙명여자대학교	24	46	21	42이상	140	학과
대학원	·	36	·	·	36	학과
교육대학원	·	36	·	·	36	
숭의여자전문대학	28	33	(교직 4)	15	80	학과

(출처: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1996 참조)

을 선택해야 만 하는가를 냉정하게 판단 하여야 한다. 최소 학점인정제에 의하여 수요자인 학생의 선택에 따라 사장되는 학문분야가 있거나 전공과목 내에서 사장되는 교과목이 있게 된다면 학문발달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헌정보학과는 가능하면 학과로 존속하면서 과거의 부전공제를 잘 활용하여 주제전문가로서의 소양을 닦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교육개혁안에 의한 학부제는 대학원중심대학을 소수화 하며, 각 대학마다의 특징, 학문적 우월성 등을 갖추게 하여 규모와 형식 측면의 경쟁에서 벗어나 학문의 질과 특징에서 대학 각자의 존재 의의와 위상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김충렬 1995, 26). 이러한 노력이 따르지 않을 때는 학점인하는 질적인 저하와 현장과의 연계에서 모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고등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교수, 학생의 교육 및 학습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개혁을 전제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5. 3 학교 및 학력간의 학점 불균형

<표 3>에서와 같이 학부과정에서도 학부제 실시대학과 미실시 대학간의 이수학점은 30학점에서 70학점까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게 된다. 이러한 학교간의 차이는 실용적 성격이 강한 문헌정보학 전공의 졸업생 진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전문대학이 61학점 이상의 전공과목

을 개설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학력간의 전공과목 학점 수와 그로 인한 실 무능력 차이의 심각한 모순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만약 최소학 점제 실시 대학의 졸업생이 대학원을 가지 않고 현장에 투입된다면 정사서가 준 사서에게 업무 면에서 조언을 들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전공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회에서의 일반사서직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게 될 수도 있다.

5. 4 대학원 교육

현재 고등교육개혁안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학원 과정은 ①학문중심의 과정을 통해 학자양성 및 순수학문 연구에 목적을 둔 일반대학원, ②특정직업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주로 자격증을 소지하는 전문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는 전문대학원, ③직장인 또는 일반성인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특수대학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5월 현재 전문대학원은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의 반발로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중앙일보, 1997, 5.6).

일반대학원은 전문인력을 양산하는 곳이 아니라 순수학문 연구 및 수준 높은 연구인력 양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일반대학원은 학문후계자와 창의적 연구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자격증을 소지하는 전문인 양성의 전문대학원이나 전문직의 재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특수대학원과

분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원이 전문인력 양성 위주로 운영됨으로써 순수한 의미의 대학원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불합리한 대학원운영은 지양하여야 하며, 학자양성 및 연구활동에 목적을 두는 일반 대학원 기능은 강화되어야만 학문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5 사서자격증과 교육의 관계

복수전공 학부제가 교육편제로서 정착된다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5조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이 경우에 이수학점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학과의 졸업자 및 전공자로서 일정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다면 최소학점제에 의한 학점수 인하 및 개설교과목의 축소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사서직의 자격을 위하여 자격시험을 원한다면 학부제 이상의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구조가 다른 나라의 제도를 본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학점이수 여부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문헌정보학 저변인구 확보 및 계속교육에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6. 문헌정보학 교육방향

새로운 시대를 위한 문헌정보학 교육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변혁의 과정을 거쳐 학문 발전에 이바지하고, 정보담당 현장과 학생들에게 유익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1)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교육과정의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헌정보학의 실용적인 측면은 이론과 실무가 병행하는 교육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용자요구, 사회적 요구, 전문직 책임과 특성 및 정보기술 등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적 동향의 재조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전문직 교육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직교육은 전문직 업무분야에 관련된 축적된 이론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수, 개발하며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록정보 담당기관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인 이론과 기술 개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직 교육 및 그 책임이 중요하다.

그런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지식은 과업활동 현장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식이고, 1-2년 정도의 활용을 전제로 하는 단기 응용적 지식인 반면 대학의 응용연구는 그것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인력양성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더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소광희 외, 1994, 250 참조). 따라서 문헌정보학

교육은 전문대학, 학부, 대학원으로 올라 갈수록 교육내용이 이론화, 체계화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행하고, 대학에서는 실무와 이론을 병행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학부교육은 실무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응용, 개발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도의 이론적, 체계적인 지식은 대학원에서 연구하도록 하며, 현장근무자의 재교육은 특수대학원이나 사서교육원을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사서직 윤리관을 정립하여야 한다. 사서직 윤리는 사서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체적인 자세로 도서관활동과 관련된 분야는 물론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 까지 관심을 보이며, 이용자의 개인적,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동태적인 의사결정과 사회참여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가치지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 유익을 위한 사회성, 공공질서 준수를 위한 공공성, 이해관계자 집단 전체를 위한 공익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현대에는 정보의 취득여부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정보를 취급하는 사서나 정보관리자의 직업윤리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이나 정보봉사 기관에서 윤리성이 관계되는 업무는 ①기술봉사 부분 ②이용자봉사 부분 ③기타: 도서관경영, 자동화과정, 데이터베이스 검색과정 등이다 (이순자 1992, 6-9). 즉 거의 모든 부분에

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가 있는 것이다.

(4) 정보기술의 이해와 활용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도서관 활동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사서는 각종 정보전달 매체의 활용법, 정보망 이용법, 새로운 통신기술의 사용법 등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그 활용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5) 국제적 시각을 배양하여야 하며,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21세기의 사서는 통신기술 발달로 인하여 국제적인 정보검색사, 정보분석가, 정보관리자, 정보연결자, 정보해석자 등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서 및 정보전문가는 세계적인 정보유통매체, 방법 및 방향에 정통하여야 한다. 그 예로서 1975년 301종이었던 데이터베이스가 1993년에 27배 증가한 8,261종이었으며, 1975년 5천2백만 레코드수는 1993년에 107배가 증가한 55억7천2백만으로 증가하였다(Williams 1994, xx). 이와 같이 전세계의 급증하는 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6) 의사소통의 대두와 중요성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서직 교육은 정보의 전달 방식에 대한 의사소통의 방법,과정,내용,방향 등에 대한 교육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7) 사례연구, 현장견학 등의 교육방법

을 지향하여야 한다. 사례는 실제의 경영 상황을 설명해 주는 자료인데, 이 사례를 다루어 봄으로써 경영자가 실제 경영에서 얻는 것과 흡사한 경험을 갖게 된다.(안중호 1994,109). 사례중심의 연구와 교육은 현장감, 현실감 및 생동감이 넘치는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아울러 피교육자의 분석력, 종합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능력을 개발한다. 앞으로 문헌정보학 교육이 이론에만 치우쳐 현실과 유리되는 것을 막고,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충분한 사례개발과 아울러 교육에의 활용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8) 실무중심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전문직은 정규교육기관의 교육과 현장에서의 실무경력이 요구된다. 교육기관에서는 현장경험 이전의 전문직을 배출하므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89년 도서관학과 출신 정보관리 실무자 조사에 의하면, 대학에서 배운 정보학의 실제 유용성에 대하여, 약간 유용하였다(52.4%), 유용하였다(33.3%), 아주 유용하였다(14.3%) 순서로 응답하였으며, 심지어 대학교육에서 얻은 것이 정보관리 실무수행에 유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있었다(최성진 1989, 140-141). 이것은 1989년도 의 문헌정보학 대학교육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졸업자가 현장에 투입되어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에 관한 간접봉사 및 직접봉사에 대한 양 측면의 실무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예로서, 분류, 목록, 광디스크이용법,

인공지능법의 이용법, 데이터 베이스의 종류 및 사용법, 인터넷 등 정보망 사용법 등 사서 자신이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이용자를 위한 정보안내자가 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9) 문헌정보학 각 영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전공필수와 선택의 채택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포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학문의 균형을 세우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각 영역의 전공필수, 선택 구분이 필요하다.

(10) 학제적 연구방법을 지향하여야 한다. 도서관, 정보센터 등 오늘날의 정보관련 기관들이 앞으로도 계속 존속할 수 있고, 나아가 21세기의 변화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산학, 경영학, 공학 등의 복합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새로운 정보봉사제공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제적 연구활동이 요구된다.

(11) 계속교육, 생애학습으로서의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계속교육은 모든 전문직에 중요하며, 그 전문직의 지식범위, 지식기반 및 방법이 급격히 변하는 전문적인 환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Fisher and Matarazzo 1993, 290).

특히 급변하는 컴퓨터, 통신기술 및 정보기술을 적용하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계속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장혜란 교수(1997)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0.5%가 계속교육에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고, 주관기관은 도서관협회(30.8%), 관련 학·협회(23.1%), 대학의 문헌정보학과(21.3%)의 순서로 나타나 학.협회나 대학의 역할에 기대가 큰것을 알 수 있다. 대학에서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몇년 지나면 폐기될 우려가 있는 지식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과 이론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한다.

7. 결 론

1957년 도입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대학교육은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보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직 양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한국적 문헌정보학의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5년부터 시작된 고등교육개혁으로 말미암아 학부

제로 운영되는 대학교가 있게 되면서 다양한 수준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학과의 소속계열의 통합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것은 문헌정보학 특유의 다면적인 특성에 기인함과 동시에 교육정책에 따른 시대적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학과개설이라는 실리적 측면과 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선발이라는 정책 아래 학문적 소속영역의 통합된 의견조정이 없이 교육활동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고등교육개혁이라는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 학문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보다 나은 전문적 교육 및 학문발전에 노력하여야 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과 학문의 관계, 문헌정보학의 위치, 학부제로 인한 장·단점, 그리고 교육 방향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고찰하였다. 앞으로 더욱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문헌정보학의 속성과 교육이념 및 교육방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병림. 1995.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미래 전망", *대학교육* 73: 47-54
- 구본영. 1996. "한국 문헌정보학의 학부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
- 김길자. 1994. "우리나라 석.박사 학위논문 에 나타난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식. 1994. "學科統合과 學部制", *教育振興* 7(2):14-23
- 김영한. 1995. "대학교육의 개혁에 대한 제언", *대학교육* 76:8-12
- 김정소. 1978. "도서관학의 학문적 성격과 체계화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5:1-31.
- 동아일보. 1997. 5. 1 美 <인터넷대학> 뿌리내린다.

- 박준식. 1979. “圖書館學의 體系와 展開”, 圖書館學概論, 現代圖書館學叢書編纂委員會編, 42-60.
- 사공철 등편. 1996.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 소광희 외. 1994. 현대의 학문체계: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서울. 민음사
- 李載喆. 1990. “文獻情報學의 學名에 대한 考察: 圖書館學科의 科名稱 改正과 關聯하여”, 情報管理學會誌 7(2): 1-34
- 안중호. 1994. “사회, 경영환경 변화와 경영학 교육의 전망”, 대학교육 72:105-111
- 오경목. 1997. “영국 문헌정보학계의 발전 방향”,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집 4: 125-135.
- 윤평중. 1995. “대학교육 개혁과 인문학의 위기”, 대학교육 78:8-9
- 이규환. 1995. “대학 50년의 발자취: 자성과 개혁방향”, 大學教育 73: 18-30
- 이기홍. 1995. “우리 학문과 대학의 역할”, 대학교육 73:39-46
- 이은철. 1996. “학부제 도입에 따른 문헌정보학 교육의 제문제: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중심으로”, 1996년도 한국문헌정보학과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발표 논문요지, 41-51
- 장혜란. 1997. “문헌정보전문직을 위한 계속 교육에 관한 연구:현황과 요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1): 7-28.
- 전성현. 1994. “새로운 교육체제가 필요한 경영정보학 교육”, 大學教育 72: 112-118
- 정동열. 1992.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구미무역.
- 정요섭. 1994.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大學教育 72:10-29
- 정필모. 1969. “圖書館學의 새로운 體系”, 中央大論文集 14: 65-90.
- 정필모. 1974. “문헌정보학의 형성논리”, 한국비블리오 2: 38-65.
- 중국어도서관학회 편. 1993. 도서관학과 정보과학. 심우준 역. 서울.정일출판사.
- 중앙일보. 1997. “전문대학원 설립·난망”, 5. 6: 21
- 천세영. 1995. “大學教育 需要의 長期 展望”, 教育振興 8(1): 124-135
- 최석두. 1996. “학부제에 따른 문헌정보학의 제반문제”, 1996년도 한국문헌정보학과 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발표 논문요지, 34-40
- 최성진. 1989. “정보학 교육의 개혁 방안 연구”, 도서관학 10:111-176.
- 최성진. 1995. 도서관학통론. 증보5판. 서울. 아세아문화사.
- 한상완. 1996. “학부제 실시와 문헌정보학의 진로: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중심으로”, 1996년도 한국문

- 헌정보학과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발표 논문요지,
19-33.
- 市川昭午. 1995. "21世紀를 指向하는 日本
의 大學改革政策", 教育振興
8(1):136-146
- 新圖書館ハントフスツク. 1984. 岩猿敏生
等. 東京.
- Budd, John M. 1995 "An episte-
mological foundation for lib-
rary and information sci-
ence", *Library quarterly* 65
(3): 295-318.
- Fisher, William and Matarazzo, James
M. 1993. " Professional de-
velopment for special libra-
rians: formal education and
continuing education for ex-
cellence", *Library trends* 42
(2): 290-303.
- Foster, Stephen P. 1993. " Victi-
mization in library school
closing thetoric: a response to a
library quarterly symposium",
Library Quarterly 63(2), 199-205.
- Huber, Jeffrey T. 1995 "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practi-
tioner",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119-130
- Moore, Mary. 1995. " Impact of the
changing environment on
academic library administra-
tion: conflicts, incongruities,
contradictions and dichot-
omies",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22(1): 13-38.
- Williams, Martha E. 1994. "The state of
database today : 1994", in
Gale directory of database, v.1,
ed. by K.Y. Marcaccro. pp.
xix-xxx.
- Young, Heartsill, ed. 1983.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
formation science*. Chicago,
ALA.